

Part 4 — 위기의 파도에서 서핑하는 법 (Q&A)

4월 3주차 Q&A — 25조 추경에 따른 부동산 / 증시 영향

· 정리 2026-05-22

25조 추경 청구서 — K자 시대 가이드

Q&A 4월 3주차 (2026-04-20, parent: Part 4-1강). 두 분 질문 — **Q1 공부하는 돌고래님** (25조 추경의 부동산·증시 영향) / **Q2 간식먹는 펭귄님** (K자 시대 액티브 vs 패시브).

Part 4-1강 부채 J커브 직후 회차. 한국 추경이 지금은 작동하지만 2~3년 뒤 청구서가 온다. K자 시대 자산 배분 정밀 가이드 — 미국 코어 + 한국 전술 + 금 중심.

13~14% S&P 500 36년 연평

균

원화 환산, 배당 재투자. KOSPI 7~8%, 미국 국채 7~8%, 닛케이 4~5%. **한국 주식 = 미국 국채**. 한국 적극 가정 다 넣어도 36년간 국채와 동일. 미국만이 지속 우상향.

25조 추경 — 부동산 자극? 주식 상승 동력? K자 시대 액티브가 패시브보다 유망? 강사 답: 시차를 보라, 그리고 핵심은 글로벌 자산.

1. 도입 — 두 질문 + Part 4 사전 그림

Q&A 4월 3주차 (2026-04-20, parent: Part 4-1강). 두 분 질문 — **Q1 공부하는 돌고래님** (25조 추경이 부동산 다시 자극할까? 주식 상승 동력?) / **Q2 간식먹는 펭귄님** (K자 경제에서 정부 미는 산업군 액티브 펀드가 패시브보다 유망?).

Part 4-1강(2026-04-16) 부채 J커브 직후 회차. 본 회차로 한국 추경의 단기 호재 + 장기 청구서 시각 + 패시브·액티브 K자 시대 가이드를 정리한다.

2. 추경 효과 자산별 시차

Q1-1. 25조 추경이 자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자산별 반응 속도가 다르다.**

주식 (즉각) — 추경 기대 보름 + 실제 살포 후 보름. 사람들이 소비보다 주식 매수. **부동산 (3~6개월 간접 지지)** — 25조로는 추세 못 만듦. DSR 강화 + 가계부채 압박. **물가 (12~18개월 → 9~12개월)** — 프리드먼 Long and variable lags. 최근 정보 전달 빨라져 단축.

상승 동력이라 하면 지속 상승이지만 추경은 **원타임 효과** — 한 달짜리. 펀더멘털 개선 아닌 유동성. 착각 금지.

■ 자산별 반응 속도

자산	반응	메커니즘
주식	즉각	추경 기대 보름 + 실제 살포 후 보름 (소비보다 주식 매수)
부동산	3~6개월 간접	25조로는 추세 못 만듦. DSR + 가계부채 압박
물가	12~18개월 → 9~12개월	프리드먼 Long and variable lags. 정보 전달 빨라져 단축

3. 영국 vs 한국 — 베이비부머 차이

왜 한국 추경은 아직 작동하나? 영국 리즈 트러스 2022와 비교해보자.

영국 (2022) — 자원 없이 감세 + 지출 증액 → 채권시장 반란 + 파운드 폭락 + **45일 만에 사퇴**. GDP 부채 **105%**. 한국 (2026) — 초과세수 + 국채 발행 無 → 멀쩡. GDP 부채 **50%**.

영국이 무능해서가 아님 — **베이비부머 차이**. 한국 베이비부머는 1954~1974년생, 가장 어린 사람이 **52세** (세금 뽕뽕 납부). 영국은 1946~1964년생, 가장 어린 사람이 **62세** — 거의 다 은퇴. 세금 안 내고 복지 받는 고령층 ↑ → 국가 부채 폭증.

■ 영국 리즈 트러스 vs 한국

항목	영국 2022	한국 2026
정책	자원 없이 감세 + 지출 증액	초과세수 + 국채 발행 無
GDP 대비 부채	105%	50%
베이비부머 막내	1964년생 = 62세 (거의 은퇴)	1974년생 = 52세 (세금 뽕뽕)
결과	45일 만에 사퇴	멀쩡

4. 2~3년 뒤 한국도 J커브 작동

Part 4-1강의 J커브가 한국에도 **2026~2027년부터 본격 진입** 예고. **그때부터 추경 시 주가 하락.**

지금은 한국이 재정 지배 단계가 **아니라** 추경이 먹히는 시기. 2~3년 동안 추경 = 증시 희소식 (희소식 ON, 매크로 호재).

2~3년 뒤 추경 = 증시 악재 (J커브 진입). 베이비부머가 본격 은퇴하며 세금 안 내고 복지 받는 비율이 영국 수준으로 올라간다.

케인스 vs 프리드먼 — 케인스: 재정 확대 → 총수요 즉각 증가 (단기 처방). 프리드먼: 12~18개월 시차로 물가 역습 (Long and variable lags). 추경의 한계 = 시차로 돌아오는 청구서.

5. 인플레이션 2파 — 쌍봉 위험

추경 더 큰 문제 = 인플레이션 2파.

1파 (현재) — 중동 전쟁 유가 급등, 공급 충격. **2파 (1년 뒤)** — 추경 + 금리 인하, 수요 충격.

2026 하반기 = 1파 + 2파 만나는 구간 → 쌍봉 인플레이션 위험. 한국은행이 추경 풀린 만큼 돈을 흡수해야 2파 완화. **신현송 총재 정책 방향이 핵심.**

이 그림이 Part 4 본격 진입에서 한국 부채 J커브가 본격 작동하는 시점 정밀 진단으로 이어진다.

6. 패시브 36년 수익률

Q2. K자 경제에서 정부 미는 산업군 액티브 펀드가 패시브보다 유망? K자 시대 산업 격차 확실. 정부 정책 밀어주기로 액티브 펀드(코스닥 액티브 등) 출시 줄지음. 그러나 강사 결론은 여전히 패시브가 정답.

패시브 36년 수익률 — 원화 환산 연평균 (배당 재투자): S&P 500 13~14% / KOSPI 7~8% / 미국 국채 10년물 7~8% / 닛케이 225 4~5%.

한국 주식 = 미국 국채. 적극 가정(배당 재투자) 다 넣어도 36년간 미국 국채와 동일. 미국만이 지속 우상향 — 다른 모든 나라는 자본 유출이 너무 크다.

■ 패시브 36년 연평균 (원화 환산, 배당 재투자)

S&P 500		13~14%
KOSPI		7~8%
미국 국채 10년물		7~8%
닛케이 225		4~5%

한국 주식 = 미국 국채

7. 한국 코스피 = 계단식

한국 코스피는 계단식으로 움직인다. 1988~89 계단 + 급등 → **1990~04 박스피 15년** → 2005~07 계단 + 급등 → **2008~23 박스피 13년** → 2024~26 계단 + 급등.

측정 시점이 수익률을 결정한다. 2024년 말 기준 16년 수익률: 연 **4~5%** (미국 국채의 3분의 2). 2026-04 기준 16년 수익률: 연 **10~11%**. 같은 자산이 측정 시점에 따라 2배 차이.

한국 = 2~3년 보유 후 매도가 정답. 안 팔면 박스피 10~15년. "이번엔 다르다"는 매번 상승장마다 나왔으나 항상 틀림. 워런 버핏 같은 장기 투자 거상이 한국에 없는 이유 — **박스피 12~15년을 견딜 인간이 없다.**

■ 한국 코스피 계단식 (1988~2026)



8. 액티브 vs 패시브 — SPIVA

SPIVA 통계 — 10년 이상 액티브가 패시브를 이긴 비율: 미국 8~15% / 유럽 ~10% / 일본 ~18%.

최대 18%, 미국은 10명 중 1명만 패시브 이김. 그 10%를 사전에 골라낼 방법 없음.

드러켄밀러는 30년간 손실 0 — 그러나 자기 돈만 굴림 + 거대 기관 돈만 받음. 개인은 그런 펀드에 못 들어감.

■ 액티브가 패시브 이긴 비율 (SPIVA 10년 이상)



최대 18% — 사전 골라낼 방법 X

9. 액티브 3 함정

액티브의 구조적 함정 3가지.

① **비용 비대칭** — 손실 구간에서 수수료가 수익을 더 크게 갉아먹음. ② **모멘텀 역습** — 상승장에 가장 고평가 자산 집중 투자 → 하락 시 낙폭 극대화. ③ **생존자 편향** — 망한 펀드는 통계에서 제외, 수익률 통계 과장.

ARK (돈나무 언니) 사례 — 상승장에 시장보다 2~3배 수익률 → 박살날 때 훨씬 더 박살. **액티브는 모멘텀 단기 (2~3년)에만 의미.**

■ 액티브 3 함정

함정	설명
비용 비대칭	손실 구간에서 수수료가 수익을 더 크게 갉아먹음
모멘텀 역습	상승장에 가장 고평가 자산 집중 → 하락 시 낙폭 극대화 (ARK 사례)
생존자 편향	망한 펀드는 통계에서 제외, 수익률 통계 과장

10. K자 시대 강사 권고

K자 시대 자산군 역할 정리.

미국 S&P 500 / 나스닥 100 — 장기 패시브 코어 (36년 데이터 검증). 한국 K자 상단 ETF — 중기 전술 자산 (2~3년 타이밍, 계단 오를 때 타고 치숏으면 비중 축소). 액티브 펀드 — 원칙적 배제 (모멘텀 단기만 가능). 금 (글로벌 자산) — 핵심 코어 (나라 영향 X). 나스닥 (준글로벌) — 보조 코어 (옛날만큼 완전 글로벌은 아님).

미국이 7~8년마다 30% 빠지므로 좋은 기회 시 왕창 집어넣고 평소 분산 적립 전략 유지. 한국이 25년처럼 영원히 미국 상승률 능가하는 불가능 — 일본도 80% 반도체 점유했지만 미국 상승률의 3분의 1만 따라옴.

투자의 코어는 여전히 미국 중심으로 놓고 투자하면서 글로벌 자산(금)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 — 한 나라의 정치·경제 영향 받지 않고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자산.

K자 시대 자산군 역할

자산군	역할	기간
미국 S&P 500 / 나스닥 100	장기 패시브 코어	36년 데이터 검증
한국 K자 상단 ETF	중기 전술 자산	2~3년 타이밍 (계단 오를 때 타고 치숏으면 비중 축소)
액티브 펀드	원칙적 배제	모멘텀 단기만 가능
금 (글로벌 자산)	핵심 코어	나라 영향 X
나스닥 (준글로벌)	보조 코어	옛날만큼 완전 글로벌은 아님

11. 마무리 — Part 4 본격 진입 예고

본 회차로 한국 추경의 **단기 화재 + 장기 청구서 시각 + 패시브·액티브 K자 시대** 가이드를 정리.

강사 결 — 지금은 한국 추경이 작동하는 **2~3년 희소식** 시기. 그러나 J커브가 본격 작동하면 같은 추경이 악재로 변한다. 인플레이션 2파 쌍봉 + 베이비부머 은퇴 + 부채 비율 상승이 그 트리거.

다음 Part 4 회차에서 **한국에서 부채 J커브가 본격 작동하는 시점**이 정밀 진단된다.

2~3년 희소식 + 글로벌 자산 코어

Q&A 4월 3주차. 두 질문에 강사가 답한 25조 추경의 자산별 시차 + 영국 vs 한국 베이비부머 + 2~3년 뒤 J커브 + 인플레이 2파 쌍봉 + 패시브 36년 + 액티브 3 함정 + K자 권고.

투자의 코어는 여전히 미국 중심으로 놓고 투자하면서 글로벌 자산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 글로벌 자산은 한 나라의 정치·경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것 — 금이 대표, 나스닥은 준글로벌. — 강사 결론.

한국은 2~3년 동안 추경이 희소식이지만 그 뒤로는 J커브가 작동한다.

한국은 2~3년 동안 추경이 희소식이지만 그 뒤로는 J커브가 작동한다. 투자의 코어는 여전히 미국 중심에 글로벌 자산(금)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 — 한 나라의 정치·경제 영향 받지 않고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자산.

다음 정규강의 — Part 4-2강

부채 J커브 한국 작동 시점 정밀 진단

본 회차의 2~3년 뒤 J커브 예고를 받아 한국 부채 J커브가 본격 작동하는 시점 정밀 진단.

본 정리는 박종훈의 지식한방 Q&A 4월 3주차 회차(2026-04-20, parent: Part 4-1강) 콘텐츠 정리본이다. 강사 본인 정수 + 강의 자체 정량(36년 수익률·SPIVA·영국 vs 한국 부채) 인용으로 구성. 외부 자료 보강은 본 회차에서 사용하지 않았다.